

지자체 소식

■ 제주도, 청정에너지실증연구센터 설립 운영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지역내 풍력, 태양,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증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공과대학내에 청정에너지실증연구센터를 설립, 이번부터 본격적인 실증연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금년 하반기부터 매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게 되는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에서는 제주지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종합적 운전상황 평가 및 성능개선안을 분석 도출하고 도내 유망 지역에 대한 안정적 실측 자료의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 및 기술교류 사업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현재 구좌 월정지역에 2009년까지 332억원을 투입, 해상 풍력을 비롯하여 태양, 수소 에너지 등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정실증연구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정에너지 공급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뿐만아니라, 제주 전지역이 청정에너지 연구 산업 중심지로 크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강원, 『기업애로 해결 이동상담센터』 운영

강원도는 『기업 氣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는 내수부진과 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를 구축하고 도와 유관기관이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1차로 동해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성과를 분석 후 기타 단지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센터 운영은 도, 시군, 중기청, 조달청, 금융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도내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자금·판로·경영 등 기업애로 전반에 대하여 현장 이동상담을 통해 해결한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1차로 지난 8월 북평산업단지내 66개 입주업체중 상담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단지내 월드상사 2층 회의실에서 10개 기관관계자 14명이 기업애로 종합상담을 실시했다.

■ 경북, 재해쓰레기 신속한 처리 민간단체와 협약체결

경상북도는 수해 등 각종 재해시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되는 재해쓰레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역의 폐기물처리 관련 민간단체와 지난 8월 11일 ‘재해쓰레기 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재해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및 한국폐자원재활용 수집협의회, 경북재생용재료수집판매협동조합, 한국자원재생재활용 협회 등 5개의 폐기물처리 관련 민간단체와 체결한 협약으로 재해발생시 이들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집게차, 트럭, 덤프 등의 장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해지역에 투입 함으로써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재해발생시 일시에 대량의 쓰레기가 배출됨에 따른 시군 보유 청소장비만으로는 신속한 쓰레기처리가 곤란함에 따른 조치이다.

협약 주요내용은 재해쓰레기 발생시 신속한 처리지원

을 위해 지원가능한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상호 공유하고 재해시군에서 장비 지원요청시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해쓰레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조치하고 지원에 소요되는 민간단체의 경비(유류비, 급식비 등)는 당해 시장·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담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 소속 참여자의 부상이나 장비고장시 보상규정 등을 제시 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03년 태풍 '매미' 및 '04년 태풍 '디엔무·메기' 등 재해발생시 김천 및 영양 지역 등에서 총 27,800톤(연간 도전체 쓰레기발생량의 3%)의 재해쓰레기가 발생하였으며, 당시에도 이들 민간단체의 협조로 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으며 금번 협약체결로 향후 재해발생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비지원등으로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수해복구에도 일익을 담당하여 수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충북, 천연가스 공급 눈앞

맑고 청정한 대기환경 보존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천연가스 공급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 충북 음성군민의 생활환경에 커다란 전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가스공사 충북권 공사팀에서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한 충북권 주배관건설공사에 대한 사업목적과 추진경위, 일정, 사업효과 및 천연가스 공급체계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치며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신히탄을 터뜨리며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공사를 시작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중인 충북권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음성공급관리소는 감곡면 오궁리 394-1번지 일대 1만1383㎡ 규모로 2005년 1월 공사를 착공해 9월말 완공과 더불어 감곡면 일원에 가스공급이 시작된다.

한편 관내 배관공사를 맡은 청주도시가스는 감곡면 오궁리 공급관리소를 기점으로 감곡면 일대 배관공사를 완료했다.

현재는 생극면 방축리 일원 21km구간에 대해 9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말 이 구간공사가 완료될과 동시에 생극면 지역까지 천연가스가 공급된다.

1차 관내 배관망 매설사업은 2005년까지 감곡, 생극, 금왕읍 구간까지 완료하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년차적으로 대소, 음성, 맹동, 삼성지역까지 매설할 계획으로 있어 2011년에는 원남면과 소이면을 제외한 관내 7개읍면에 청정가스인 LNG가 원활하게 공급돼 삶의 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도모하게 된다.

■ 전남,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전남도는 전통 한옥마을 조성 등 한옥의 관광자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최근 주거생활이 편리성 위주로 변모하면서 독특한 전통문화와 가옥들이 옛 모습을 상실하면서 전통 주거문화가 퇴색되고 있어 우리의 전통한옥을 중심으로 주거문화를 되살리고 보존하는 한편 전통한옥을 이용한 민박사업을 추진, 부족한 숙박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는 이에따라 전통한옥마을은 구례 화엄사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 새롭게 조성하거나 기존 고택이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의 경우 마을을 새롭게 정비해 빈 집터를 활용한 한옥신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통 한옥마을에는 민박운영은 물론 민속놀이 시설과 전통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갖춰 전통문화 체험마을을 조성 이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이같은 마을에는 주민 자율추진위원회와 촌장을 두어 주민 스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도와 시군에서 이를

지자체 소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옥민박은 우선 올해 40동을 시범적으로 건립키로 하고 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남도는 특히 보성강골마을과 같이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마을을 포함해 곡성 심청마을, 함평 모평마을, 구례 운조루마을 등 도내 한옥마을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10여개 마을을 선정한 뒤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구, 병입수돗물 공급 인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강성철)가 지난 2001년 3월부터 국제행사 및 공공행사나 민간단체의 공익적 행사에 무료로 공급하기 시작한 병입 수돗물이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2001년 최초 병입 수돗물 생산시 마시려는 시민들이 적어 공급량이 매우 적었으나, 2002년 말부터 두류정수장에서 자체 생산시설을 확보해 대량공급이 가능해지고 병입 수돗물 공급 홍보가 이루어지자 신청량이 급증, 2004년 한해에만 28만7,000여병을 공급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금년에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0만병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7월말 현재까지 14만여병을 공급해 생산물량이 달려 원하는 시민에게 모두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고도정수처리로 수돗물의 수질과 맛이 많이 향상되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마시기 편하게 500ml 단위로 병에 담아 무료로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생산시설을 최대한 가동 시민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 울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울산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공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현재 성암생활폐기물 매립장이 2010년경 매립 종료 예정으로 있어 오는 2038년까지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매립장 확장사업과 소각장 증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시장실에서 박맹우 울산시장과 김현중 (주)한화건설 대표이사가 양측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공사는 남구 성암동 산 150번지 일원에서 건설되며 총 1,080억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11만7,000㎡, 시설용량 260만㎡의 규모로 매립장을 확장하고, 기존 소각장 부지내에는 시설용량 250톤/1일 정도 규모로 소각장을 증설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앞으로 민간제안서 접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제안내용공고 및 제3자 공모, 협상대상자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또한 시설물이 준공되면 소유권은 울산시가, 시설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갖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울산시의 재원 부담해소와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매립 및 소각할 수 있으며 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건설공사에 지역 관련 업체를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수증대는 물론 민간의 설계, 시공, 운영관리책임으로 처리장의 운영에 효율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공

사는 오는 10월부터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아 2007년 착공, 2009년 완공한다는 일정으로 돼 있다.

■ 경남, 공중화장실 확충·정비사업 추진

주5일 근무제 시대와 피서철을 맞이하여 많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유원지 등 휴양시설을 찾고 있으나, 설치된 1,220여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미비와 노후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 '99년부터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아름답고 그 자체가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표아래 관광지 등 내방객이 많은 장소에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설치·운영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경남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왔다. 2004년도 까지 사업비 87억 원을 투자 20개 시·군에 59동을 신·증축을 하였다. 금년에도 5개 시·군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26개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 43개소에 대하여 세면대, 전기설비, 내·외벽 청결 등 관리상태를 점검한바 있으며, 불결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개선함으로써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도는 관광지등 공중화장실(Public Toilet Space)에 대한 단순한 생리적 행위를 위한 공간개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휴식과 명상의 장소,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이용하는 쾌적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문화공간이란 인식을 위해 『아름다운 화장실 매뉴얼(Rest Room For More Beautiful Life)』을 제작 시·군

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는등 보는 관광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패턴과 더불어 편안하고 안락한 관광지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서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

음식물 재활용센터등을 통해 자원재활용과 민간위탁 경영의 본보기가 되어 온 강동구가 이번에는 음식물재활용센터 주변(고덕동 85번지 일대)에 1,500평(4,980㎡)규모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조성한다.

그동안 부지 및 예산등의 문제로 인해 산별적으로 조성됐던 청소차량 차고지(현 고덕동 302번지 소재) 및 재활용선별장(현 선사주거지 옆 소재)이 한곳에 설치됨으로써 관련 업무의 협조체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심의 기피 시설들을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시설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차고지가 이전됨으로써 남게 된 유희지 고덕동 302번지(온조대왕체육관) 일대에는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중고가전가구를 수집 판매하는 재활용센터(현 방아다리길 소재)가 이전하고 주민들의 기증품을 판매 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주민나눔장터 및 푸드마켓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7월 중순 경 착공한 청소차고 및 재활용 선별장 신축 이전공사는 7월 중 현재 약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10월경 준공예정으로 있다. 가전가구재활용센터는 오는 10월경 착공하여 12월이면 준공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